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영 목**

차 례

- I. 서론
- II.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III. 결론

I. 서론

작문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작문 과정에서 필자가 선택하는 의사 결정에 관하여 연구해왔는데, 그 이유는 그 의사 결정이 문제 해결 전략 혹은 인간의 지적 발달 단계 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어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행해진 작문 연구들은 대부분 작문 행위를 더욱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저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적 기저가 작문이 행해지는 총체적 맥락을 조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어 왔는데 반해 또 다른 사람들은 작문 과정의 각 부분들에 대한 연구의 종합으로부터 통합된 이론의 추출이 가능하다고 믿어 왔다.

작문의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수사학에서와 같이 작문의 표면적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의 작문 연구자들은 전통적 작문 이론서에 제시되어 있는 작문 형태들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또한 새로운 수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잘 구조화된 작문 형태들에 대한 분류 및 정의들도 그 한계성을 지남을 깨닫게 되었다. 가령, 설명문 묘사문과 같은 개념들 사이의 차이라는 것이 실제의 작문에서는 대단히 자의적인 동시에 모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그 한 예이다.

작문 연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는 작문에 관한 연구와 독서에 관한 연구들의 점진적인 통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스키마 혹은 추론의 생성 등에 관한 능력을 필자가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능력들은 독해의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철자나 어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문 기능들이 독해의 경험으로부터 획득된다는 사실은 작문 지도에서의 지나치게 부분적인 접근 방법들이 지닌 한계점을 분명히 밝혀주게 된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 작문의 과정은 아이디어의 생산 과정, 텍스트의 생산 과정, 그리고 수정하기 과정의 세 가지 특징적인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 과정들은 표현의 과정에서 동시적이며 상호 작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을 별개의 단계들로 취급하면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관한 설명 모형은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모형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II.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작문의 인지 과정 모형은 작문을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작문 문제는 필자의 사상과 감정과 독자의 기대를 필자 자신의 언어로 표상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작문 문제는 아이디어의 생성 조직과 같은 인지전략에서부터 글씨쓰기와 같은 감각 운동 기능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복잡성을 지닌다. 능숙한 작문 과정은 분명히 대단히 복잡한 문제 해결 활동을 필요로 한다. 능숙한 필자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작문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정교하게 변형하지만 미숙한 필자는 자신의 지식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Bereiter 와 Scardamalia, 1987).

문제 해결은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 Hayes와 Flower(1980)는 그들의 초기 모델에서 작문 활동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인지작용을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 재고하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계획하기 과정에서 필자는 작문 과제와 장기기억을 입력요인으로 삼아 출력 요인에 해당하는 텍스트 생산을 위한 개념적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하기의 하위 활동 요인에는 아이디어 생산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목표 설정하기 등이 있다. 여기에서 목표 설정하기는 필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활동과 지엽적이거나 전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아이디어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활동이 포함된다. 작성하기 과정에서 필자는 계획한 내용을 언어로 표상하여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을 한다. 수정하기 과정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생산한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재고하기와 교정하기 활동을 한다. 그리고 조정하기 과정에서 필자는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 과정을 연결 짓

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상위인지적 활동을 한다.

작문의 과정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작문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로서 의사소통행위로서의 제약, 언어의 구조 및 사용상의 제약, 인지적 제약, 텍스트 구조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여러 가지 제약들 중에서 인지적 제약을 중심으로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방식은 작문의 인지적 과정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음에서는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Hayes의 1996년 모형, Kellogg의 1996년 모형, Hayes의 2012년 모형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1.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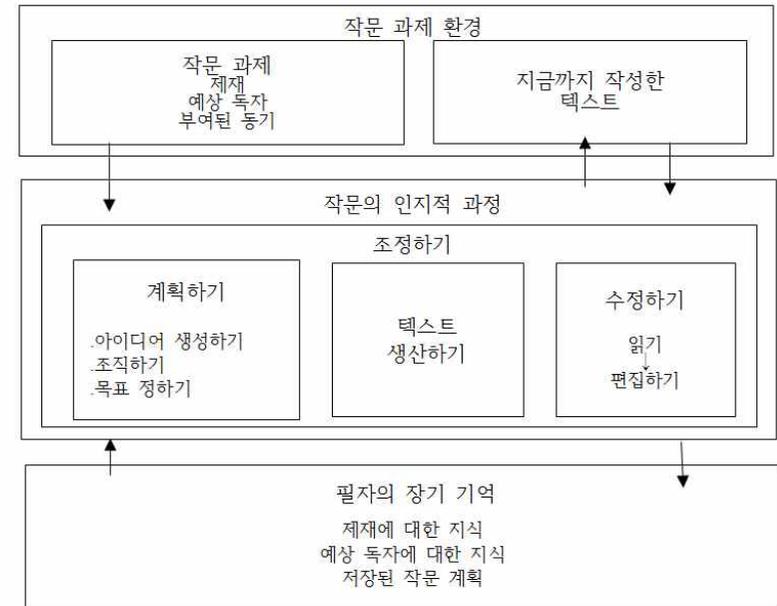
의미 구성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지주의 작문 모형으로서 Hayes와 Flower의 모형(1980)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써 작문 과제 환경 요인, 필자의 인지 과정 요인, 필자의 장기기억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필자는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외부에 놓여 있는 작문 과제 환경 및 자신의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상호교섭작용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필자 자신의 내부에서 계획하기, 생산하기, 수정하기 등과 같은 인지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작용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지작용들 사이에는 상호교섭 작용이 이루어진다.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Hayes(1996)에서 재도식화 된 것이다. Hayes와 Flower(1980)는 작문의 하위 과정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증

거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필자는 계획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도중에 다음 부분에 올 텍스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며,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이 의도한 목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찾아내어 쓰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문의 과정을 방해하기도 하며, 다음 부분의 텍스트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변경하기도 한다.

Hayes와 Flower(1980)는 작문 활동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 해결 활동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일련의 기능적 요소들로 구성된 체계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의 모형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고전 수사학자들이 제시한 작문 활동 범주, 즉 창안 배열 표현 기억 전달의 범주와 유사하다. 고전수사학에서 창안 활동은 텍스트에 사용될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과 연관되는 활동이며, 배열 활동은 내용을 조직하기 위한 방법, 표현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 기억은 표현 의도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 전달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과 연관되는 활동이다. 그러나 Hayes와 Flower(1980)가 이들 범주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는 고전수사학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작문의 인지적 과정을 식별해 내고 이들 각 과정의 내적 구조와 하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림 1>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Hayes와 Flower(1980)의 인지적 설명 모형



Hayes와 Flower(1980) 모형은 작문 행위를 일련의 계속되는 단계로 보지 않고, 필자가 작문의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몇 가지 하위 과정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하위 과정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작문 과제 환경은 작문 과제, 작문의 필요성, 대상 독자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된 텍스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필자의 인지 작용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환경적 요인들은 작문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작문 행위의 본질을 형성할 수는 없다.

필자의 장기 기억은 작문의 주제에 대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은 물론 작문 행위와 관련되는 계획하기에 관한 지식과 작문의 원리 및 수

사론적 원리에 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필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아니고, 작문의 과정에서 필자가 그의 장기 기억으로부터 끌어내어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림 1>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작문 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이 작문 과정 부분은 필자가 작문 행위를 하는 동안에 선택하게 되는 주요한 사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작문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는 내용을 생성해 내고, 그것을 조직하며, 글의 목적과 절차를 결정하는 사고 활동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계획하기는 매우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생각을 실제로 종이 위에 글로 옮겨 적기 이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계획하기는 작문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작용함과 동시에 그것이 반드시 언어적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작성하기'는 계획하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계획하기 과정에서 작성하기 과정으로 넘어올 때 반드시 언어적 형태로 표상될 수 있는 그러한 명시적 의미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필자는 쉽게 기호화할 수 없는 덜 개발된 표상들을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이러한 표상들을 문자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필자에게 새로운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필자는 그 의미를 다듬거나, 분명히 하거나 보충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하기 과정에서 다시 계획하기 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재고하기 과정은 지금까지 계획된 내용 혹은 작성된 내용을 평가하고 고쳐 쓰는 과정이다. 만약, 평가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쳐쓰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고하기 과정은 작문의 중간 혹은 끝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필자는 계획하기 및 작성하기는 일단 제쳐 두고, 지금까지 작성된 텍스트를 읽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하기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진행 중인 작문 행위를 방해하게 된다.

'조정하기'로 말미암아 필자는 계획하기 과정에서 작성하기 과정으로 옮겨가거나 또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정하기'의 기능은 필자에 따라 혹은 작문 과제에 따라 달리 활용될 수도 있다. 어떤 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어떤 필자들은 계획하기 과정이 충분히 완결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작성하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 1>에 제시된 작문의 인지적 과정 모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작문의 하위 과정들은 거의 동시적이며 상호 작용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즉,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와 같은 과정들은 반드시 고정된 순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작문의 전 과정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작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체적 목표는 물론 작문 행위의 지침이 되는 하위 목표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들 목표의 질과 양은 필자의 작문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그러한 목표들은 작문의 전 과정에 논리와 연결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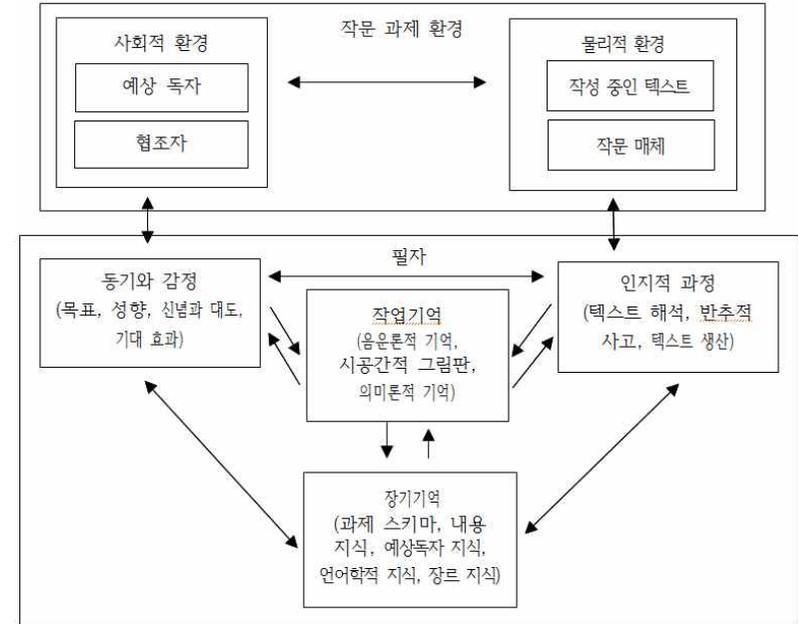
셋째, 작문 행위는 새로운 목표의 발견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단순히 일련의 하위 목표들로서 상위 목표를 뒷받침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작문의 과정에서 작문 행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위 목표를 발견 할 수 있게 된다.

2. Hayes의 1996년 모형

Hayes(1996)는 의미 구성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는 Hayes의 새로운 모형을 간단히 요약하여 재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yes의 새로운 모형에서는 필자 개인과 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의 상호교섭 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모형에서 분리하여 제시하였던 필자의 인지 과정과 장기 기억을 통합하여 필자 개인 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 작용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필자의 동기와 감정 요인, 인지 과정 요인, 작용 기억 요인, 장기기억 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다.

Hayes의 새로운 모형(1996)에서는 의미 구성 과정에서의 협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도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작문의 사회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교섭 작용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필자 개인 내부에서의 이루어지는 상호교섭 작용의 방식과 그러한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매우 정교하고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인지과학자로서 Hayes는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운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작용을 그의 새로운 모형에 직접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과 필자 개인의 상호교섭 작용은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Hayes의 1996년 모형



의미 구성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작문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대의 작문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작문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는 필자 개인의 작문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개인의 목적 의식과 창의적 사고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지주의 작문이론을 확대 발전시킨 사회인지주의 작문이론에서는 언어 공동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보고,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담화 공동체의 규준에 바탕을 둔 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건전한 상식의 계발은 언어 사용 집단으로서의 담화

공동체 혹은 학문 공동체의 참여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본다.

사회인지주의 작문이론가들은 문어활동 능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특성보다는 실제적인 문어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어활동은 사회적 상황에 기초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텍스트적 측면과 사회인지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문어활동은 의미를 구성하는 순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유목적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변형하고 구성하는 인지 과정에 비롯된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 의미 협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의 의미 협상은 개별 독자와 필자가 직면하는 대립적 요구, 서로 다른 요구와 목적과 제약, 그리고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어활동 과정에서의 의미 협상은 대부분의 수사론적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내재적인 비결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글을 쓰는 학생들은 지도교사, 동료 학생, 예상 독자, 생산중인 텍스트 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 해결 전략을 획득한다. 문어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 내부에서의 개인적 문제 해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를 구성하게 해 주는 지성적인 묘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황 해석하기, 정보를 조직하고 선정하고 연결하기, 추론 이끌어내기, 목표 정하기, 전체적 표상 획득하기, 기존 텍스트에 반응하기, 과거의 경험을 이끌어내기, 대안 상정하기, 의도 수정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양하고도 복잡한 기대와 요구와 제약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모순되는 정보, 대립되는 정보, 대립적인 목표, 서로 다른 요구,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와 동료의 충고와 필자 자신의 요구와 소망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한다. 의미 구성의 과정에서 필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목표와 기대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협상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론적 상황 읽기, 목표 설정하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재고하기와 수정하기 등을 위한 전략적 사고 활동에 의존한다. 복합적인 갈등의 면전에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변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전략과 깨어 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협상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작문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다. 작문 활동은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제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작문의 내용과 방식과 대상은 사회적 관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엄격한 실험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할지라도 활발한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연구에 의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오늘날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연구에 의하여 협동작문의 중요성이 규명되었다. Hayes(1996)는 그의 새로운 모형에서 사회적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능숙한 필자가 실제로 작문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지적 기능은 특정 유형의 사고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작문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에서는 작문이 실제적인 이용 맥락 안에 위치하며, 기존의 추상적인 구조 모형에 맞추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산되며, 사회적 관습과 활동에 의하여 중재되며, 실제적인 작문 기능은 특정 작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화됨으로써 획득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Prior, 2006).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에 의한 연구에서는 작문 공동체 내에서의 실제적인 활동이 작문 과제, 작문의 구조화 방식, 작문 결과의 수용 방식 등에 대하여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작문 양식이나 장르와 같은 구인들은 사실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떠오르게 된 관습적 구조

이며, 이들은 대단히 복잡한 관습과 기대의 총체 내에 내재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에 의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르는 공동체의 구조와 활동에 있어서 특정 변화와 발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작문이 행해지는 목적들, 그들 목적을 지배하는 사회적 기대, 필자에게 이용 가능한 구체적 담화 형식과 작문 도구, 그들의 활동을 알려주는 여타의 공동체 활동 등은 모두가 필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활동들을 알려주고 동기화하고 구성하는 더욱 더 큰 단위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작문 기능은 그러한 맥락과 그 맥락과 연관되는 활동과 제도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적 공간 내에서 의미를 지닌다.

작문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문적 글쓰기의 특정 유형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인지적 기능과 능력에 대한 정교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과 능력들은 특정 담화 배경과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활동으로 그 한계를 지닌다. 작문 과정에 포함된 수많은 인지 과정들은 사실 광범위한 문화적 상황 내에 진입되는데 그러한 문화적 상황은 예상독자와 잘 설계되어 있는 작문 활동의 풍부한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을 포함한다.

Hayes(1996)는 그의 수정 모형에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인지 과정인 텍스트 해석 과정, 텍스트 반추 과정, 텍스트 생산 과정 측면에서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문 과제에 바탕을 둔 외적 요인 즉 초고와 편집하기 사이의 구별 요인 등을 제거하였다. 그의 수정 모형에서는 장기기억과 단기기억과 정서 혹은 동기 등의 역할을 구별하면서 인지 능력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별해 내하고자 하였다. 장기기억의 내용 요소를 과제 스키마, 주제 지식, 독자 지식, 언어학적 지식, 장르 지식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고, 음운론적 기억과 시공간적 기억 등과 같은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Hayes(1996) 모형은 이처럼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에 과제 수준의 차이에 관해

서는 소홀히 다루었다. 사실 작문 과제는 계획하기, 작성하기, 재고하기, 편집하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필자에게 제시되는 문제 유형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

텍스트 해석과 반추와 생산 사이의 구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작문 과제이든 간에 그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과정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생산과 해석은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텍스트 생산의 경우, 전략적이고도 의식적으로 통제된 수사학적 계획을 실현한 일과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결정된 이후에 문장을 생산하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만약에 작문의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서 작용한다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작문 내용이 장기기억으로부터 인출되는 방식이다. 작문 활동은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를 위하여 내용 관련 정보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작문 연구에 있어서 내용 생성 방식이 상향적인가 아니면 하향적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

능숙한 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의 하향적 정보처리 이론가들은 지식이 의미론적 망의 형태로 저장되며 그 망 속에서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는 것으로 보았다. Hayes와 Flower(1980)의 모형에서 계획하기의 하위 요소인 생성하기는 장기기억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인출하기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나 독자에 관한 정보는 초기의 기억 탐사에 관여하며 각각의 인출 항목을 연상적인 형태로 추가적으로 탐사함으로써 더욱 정교화 된다.

Bereiter와 Scardamalia(1987)는 지식의 변형을 전략적 인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식의 변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수사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와 작문 과제 문제의 분석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장기기억의 복합적 탐사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인출된 내용은 필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평가되고 일차적으로 선정된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작문 모형들은 능숙한 작문에 있어서 인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어

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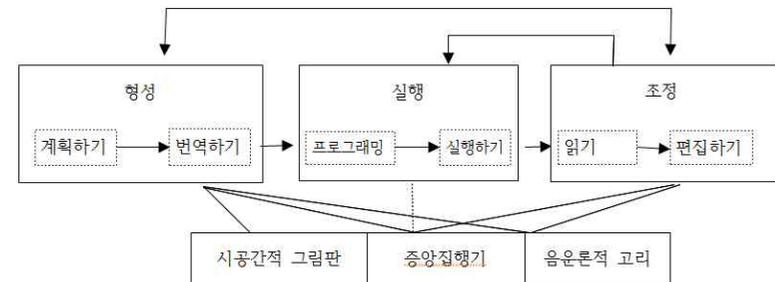
Galbraith(1999)는 그의 지식 구성 모형에서 내용 인출 방식에 관한 독특한 설명 방식을 제공하였다. 그는 작문의 효율성은 자동적 활성화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식의 구성과 지식의 변형을 비교하면서 복잡한 문제 해결만으로는 전문적 필자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문적인 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문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작문 경험을 기술하기 위하여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식 구성 모형은 이와 같은 발견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적 골격을 마련해 준다. 의미론적 망과는 달리 지식은 분산된 망 내부에서 하위 개념 단위로서 암묵적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Galbraith(1999)는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활성화 유형은 입력 제약과 망 내부의 개념들 사이의 고정된 연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능숙한 작문은 지식 변형 과정과 지식 구성 과정의 두 가지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한정된 정보 처리 용량 때문에 작문은 자동성의 개발과 전략의 이용 등을 통하여 작업기억에 대한 부담을 조절할 것을 요구한다.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일부의 비관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은 자동화 될 수 있다. 다른 작문 과정에 대한 여분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계획하거나 수정하기 등에 관한 전략은 특정 부류의 작문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지식 전달 방식은 필자로 하여금 작업기억의 용량 한계 내에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제적 접근 방식인데 반해 지식 변형 방식은 작업기억 자원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비경제적 접근 방식이다. 필자의 작문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생산적인 과정은 더욱 더 자동화 되고 문제 해결은 더욱 더 전략적이 된다.

3. Kellogg의 1996년 모형

Kellogg(1996)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작문 과정과 일련의 정보 처리 체계를 통합한 작문 과정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의 형성하기와 실행하기와 조정하기를 명백하게 구별하였다. 이들 과정은 모두 텍스트 생산 과정의 최상위 과정에 속하는 것들이다. 각각의 최상위 과정은 모두 두 개의 하위 과정을 포함한다. 형성하기 과정은 계획하기와 번역하기로 구성되며, 실행하기 과정은 프로그래밍하기와 실행하기의 두 하위과정으로 구성되고, 조정하기 과정은 읽기와 편집하기의 두 하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모형에서 화살 표시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Kellogg(1996)의 모형은 각 작업기억 등록부에 있는 서로 다른 작문 과정들을 아주 간결하게 배치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그림 3>은 Kellogg의 1996년 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3> Kellogg의 1996년 모형



<그림 3>에서 형성 과정은 계획하기와 번역하기의 두 가지 하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계획하기는 자신의 작문 행위를 위한 목표 정하기, 다음 작문 행위를 안내하는 방식과 연관되는 아이디어 조직하기 등을 포함한다. 계획하기의 결과는 언어적 번역의 과정에 의해 쉽게 처리되는 명제적 표상의 형태를 취하거나 손쉬운 번역을 가능케 하는 요지, 이미지, 감정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번역하기는 아이디어를 문어적 메시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과정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 과정은 프로그래밍하기와 운동 실행하기의 두 하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번역하기의 결과는 필기하기, 타자치기, 받아쓰기 등에 요구되는 적절한 운동 기능 체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된다. 타자치기의 경우, 팔과 손과 손가락 움직임은 대단히 복잡하고 신속한 통제를 요구한다. 프로그래밍하기와 운동 실행하기의 하위 과정은 산출 양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필기하기의 경우, 글자 크기와 글자 모양에 대한 선택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 과정은 읽기와 편집하기의 두 하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읽기의 경우, 필자는 단어 인식, 문장 이해, 명제의 통합, 텍스트의 기저 표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하위 과정에 몰두하게 된다. 편집하기는 주어진 기본 과정의 결과물과 필자의 의도 사이의 비교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하기는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진단하는 평가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4. Hayes의 2012년 모형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Hayes의 2012년 모형은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을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Hayes의 1996년 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문어 생산 체제를 자원 수준, 과정

수준, 통제 수준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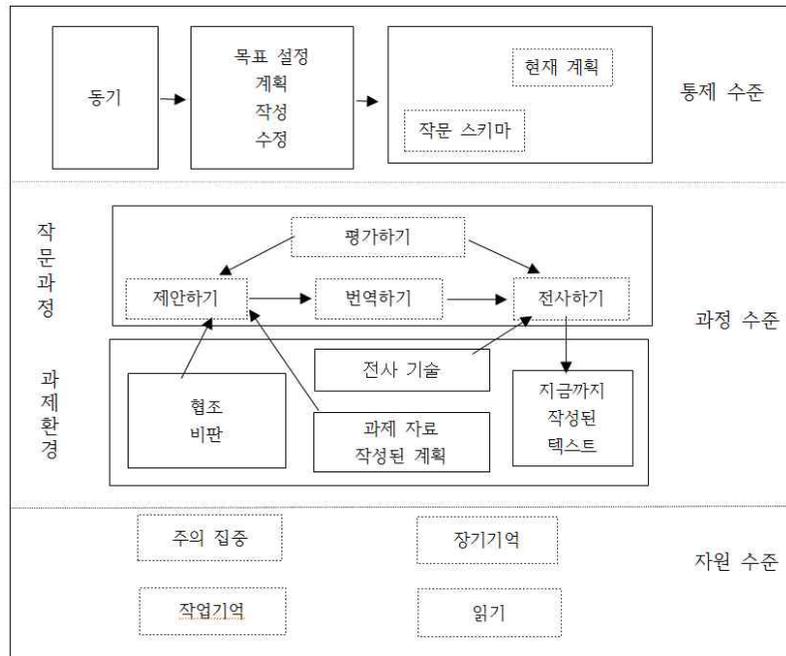
자원 수준은 다른 수준에서의 인지 과정에서 요청하는 내적 기억 과정과 일반적인 목적 관련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기기억은 서사 텍스트를 위한 정보 제공 제안자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으며, 어휘적 정보와 문법적 정보를 위한 번역자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고, 철자 규칙을 위한 전사자에 의해서도 요청될 수 있다.

과정 수준은 작문의 인지적 과정과 그러한 과정에 대한 외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은 제안하기, 번역하기, 수정하기, 전사하기 등의 하위 과정을 포함한다. 제안하기는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언어적 자원과 연관된다. 번역하기는 언어화 이전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어순과 문법적 장치를 갖춘 일련의 언어 텍스트로 전환하는 일과 연관된다. 수정하기는 제안되고 표현된 문어 텍스트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일과 연관된다. 전사하기는 머릿속에 저장된 텍스트의 내용을 실제의 텍스트로 전사하는 일과 연관된다.

통제 수준은 과제 스키마와 연관되는 수준이다. 과제 스키마는 과정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과제 목표와 일련의 생산 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작문 과제 있어서 문장 생산은 과제 목표와 지금까지 작성된 텍스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제안하기로부터 시작한다.

Hayes의 2012년 모형에서는 전사 과정과 동기를 포함시키고 조정하기, 계획하기, 재고하기 과정 등을 제거하였다.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에서는 조정하기, 계획하기, 재고하기 등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요인이지만 특징적인 작문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설명력이 약할 수 있다. 그리하여 Hayes의 2012년 모형에서는 이들 요인을 작문의 인지적 과정 모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Hayes의 2012년 모형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yes의 2012년 모형에서는 전사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글자 쓰기, 필기하기, 타자치기 등을 포함하는 전사하기가 작문 능력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작문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사 과정이 자동화 되어야 한다. 전사 과정은 필기하기 타자치기 받아쓰기 등과 같은 전사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비효율적인 필기는 다른 작문 과정의 흐름을 방해하여 텍스트 생산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능숙한 필자는 전사 도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미숙한 필자는 전사 도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필기하기는 장기기억으로부터 철자 표상 인출하기, 철자 표상을 문자소로 분석하기, 각 문자소의 형태 인출하기, 적절한 운동 계열 활성화하기 등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반면에 타자

치기는 문자소 처리 과정과 운동 계열 기능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여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전사하기 부담을 덜 가지게 될 것이다.

Hayes의 2012년 모형에서는 동기를 통제 수준의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동기가 작문의 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요인은 작문 활동에 기꺼이 몰두하고자 하는 필자의 자발성 요인이다. 양질의 텍스트를 생산하도록 강하게 동기화된 필자는 덜 동기화 된 필자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생산한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사회인지주의 작문이론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과정의 개념 속에 학생들의 경험 세계와 연관되는 '문화적 의미'와 '대화'의 참여를 포함시켜 사회문화 모형에 바탕을 둔 작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적 의미는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언어적 배경, 가족, 이웃, 성 등과 연관되며, 대화에의 참여는 특정한 문화적 체험과 사회적 체험에 의해 형성되는 학습자의 목소리와 연관된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니고 있는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실제의 작문교육 과정에서는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지나치게 성급한 도입으로 인하여 인지주의 작문 이론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작문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Hayes의 1996년 모형, Kellogg의 1996년 모형, Hayes의 2012년 모형 등을 분석해 보

았다.

능숙한 작문이란 소통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의 이용과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대단히 복잡한 인지적 활동이다. 능숙한 필자의 작문 과정에 대한 작문의 인지적 과정 모형에 의하면 필자는 텍스트 계획하기, 작성하기, 해석하기와 수정하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텍스트 계획하기 과정은 필자가 자신의 목적, 예상 독자 및 그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고등 수준의 사고과정으로 평행적이면서 회귀적인 과정이다. 텍스트 작성하기 과정은 텍스트 수준에서 의도된 내용을 실제의 텍스트로 전환하는 표현 과정이다. 이 과정은 수사학적 수준에서의 계획하기는 물론이고 수사학적 계획을 실제의 텍스트로 전환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다. 텍스트 해석하기 과정은 필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가 전달하고 있는 텍스트 수준에서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필자는 형태론적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통사론적 수준과 의미론적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 반추, 평가, 오류 점검 등의 목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게 된다.

능숙한 필자가 실제로 작문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지적 기능은 특정 유형의 사고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작문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에서는 작문이 실제적인 이용 맥락 안에 위치하며, 기존의 추상적인 구조 모형에 맞추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산되며, 사회적 관습과 활동에 의하여 중재되며, 실제적인 작문 기능은 특정 작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화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명료한 작문은 명료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명료한 사고는 명료한 작문을 가능하게 한다. 대단히 복잡한 작문 과제의 경우, 필자는 지식의 변형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대단히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통로를 거쳐야 한다. 작문 활동에 내재하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

서 핵심적인 기능은 다양한 학술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기능과 추론 기능이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작문 능력의 신장은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능력의 신장과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박영목 (1999), '국어 표현 과정과 표현 전략, 독서 연구 제4호 (307-351), 한국독서학회.
- 박영목 (2005),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사회에 대비한 작문교육의 방향과 내용', 국어교육 117호, (439-467), 한국어교육학회.
- 박영목 (2008), 작문교육론, 역락.
- Alamargot, D., & Chanquoy, L. (Eds.), (2001). Through the models of writing.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 Bereiter, C., & Scardamalia, M. (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henoweth, N., & Hayes, J. R. (2001). Fluency in writing. Generating text in L1 and L2. Written Communication, 18(1), 80-98.
- Deane, P., Odendahl, N., Quinlan, T., Fowles, M., Welsh, C., & Bivens-Tatum J. (2008). Cognitive Models of Writing: Writing Proficiency as a Complex Integrated Skill. Princeton, NJ: ETS.
- Galbraith, D. (1999). Writing as a knowledge-constituting process. In M. Torrance & D. Galbraith (Eds.), Knowing what to write: Conceptual processes in text production (pp. 79-97).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Gregg, L. & Steinberg, E. R. (Eds.), (1980).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yes, J. R. (1996).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gnition and affect in writing. In C. M. Levy & S. Ransdell (Eds.),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 (pp. 1-2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ayes, J. R. (2012). Modeling and Remodeling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29(3) 369 - 388.
- Hayes, J. R., & Chenoweth, N. A. (2006). Is working memory involved in the transcribing and editing of texts? Written Communication, 23(2), 135-149.
- Hayes, J. R., & Flower, L. S. (1980).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of writing processes. In L. Gregg & E. R. Steinberg (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pp. 3-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orning, A. & Becker, A. (2006). Revis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West Lafayette, In: Parlor Press.
- Kellogg, R. T. (1996). A model of working memory in writing. In C. M. Levy & S. E. Ransdell (Eds.),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 (pp. 57-71). Hillsdale, NJ: Erlbaum.
- Levy, C. M. & Ransdell, S. (Eds.), (1996).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 (pp. 1-2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acArthur, C. A., Graham, S. & Fitzgerald, J. (Eds.), (2006).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ark, Y. M. (1988). Academic and ethnic background as factors affecting writing performance. A. C. Purves (ed). Writing Across Language and Cultures. (pp. 261-272). CA: Sage Publication.
- Park, Y. M. (1988). The influence of the task upon writing performance, Seoul : Tower Press.
- Prior, P. (2006). A sociocultural theory of writing. In C. A. MacArthur, S. Graham, & J. Fitzgerald (Eds.),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pp. 54-6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박영목
 근무지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연락처 : 011-9406-1860
 전자우편 : pymsky@gmail.com

■ 국문초록 ■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영 목

이 연구에서는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Hayes의 1996년 모형, Kellogg의 1996년 모형, Hayes의 2012년 모형 등을 분석해 보았다.

의미 구성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지주의 작문 모형으로서 Hayes와 Flower의 모형(1980)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써 작문 과제 환경 요인, 필자의 인지 과정 요인, 필자의 장기기억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Hayes(1996)는 의미 구성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Hayes의 1996년 모형에서는 필자 개인과 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의 상호교섭 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모형에서 분리하여 제시하였던 필자의 인지 과정과 장기 기억을 통합하여 필자 개인 속에 포함시켰다.

Kellogg(1996)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작문 과정과 일련의 정보 처리 체계를 통합한 작문 과정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의 형성하기와 실행하기와 조정하기를 명백하게 구별하였다. 이

들 과정은 모두 텍스트 생산 과정의 최상위 과정에 속하는 것들이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Hayes의 2012년 모형은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을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Hayes의 1996년 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문어 생산 체제를 자원 수준, 과정 수준, 통제 수준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제어〉 인지 과정, 인지 모형, 작문 과제 환경, 장기기억, 문제 해결

■ Abstract ■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ve Processes of Writing

Park, Youngmok

This paper undertak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models of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Cognitive models have tended to define writing in terms of problem-solving. In their original model, Hayes and Flower (1980) attempted to classify the various activities that occur during writing and their relationships to the task environment and to the internal knowledge state of the writer.

The 1990s saw a shift in focus, as new models were developed to further in-depth analysis of working memory and long-term memory and their role in writing proficiency, in addition to addressing social and motivational aspects of the writing process. In the revised model, Hayes (1996) sought to identify how various aspects of human cognitive capacity interact with these tasks, distinguishing the roles of long-term memory, short-term memory, and motivation or affect. Kellogg (1996) reinterpreted the basic parts of the writing model setting up three processes that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working memory functions, the visuo-spatial sketchpad, central executive and phonological loop.

Hayes' recent model (2012) differs from the 1980s model in a number of ways. He added the transcription process and motivation and removed the monitor,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revision/reviewing processes.

〈Key words〉 cognitive process, cognitive model, task environment, long-term memory, problem solving